

진솔한 웃음...예능하기 딱 좋은 ‘사랑꾼’ 최수종

SBS ‘동상이몽2’서 아내 사랑으로 인기
10년만의 예능나들이...CF 러브콜 쇄도

연기자 최수종이 진가를 새삼 발휘하고 있다. 1987년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한 뒤 오랜 시간 톱스타로 군림했던 그가 최근 예능프로그램 속 활약으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최수종은 최근 아내 하희라와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여전한 예능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19일 밤 방송분 이 평균 9.8%(이하 닐슨코리아 집계)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쏠린 시청자 시선을 되돌리며 월요 예능프로그램 시청률 1위는 물론 33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됐다. 특히 분당 최고시청률 13.2%로 최근 자신들에게 쏠린 시청자 관심을 입증했다. 1990년대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각광받던 최고 전성기에 뒤지지 않는 분위기다.

●변함없이 진솔한 일상 드러내기



연기자 최수종이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새삼 진가를 발휘하며 4년 만에 드라마 컴백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 SBS

‘동상이몽’에서 최수종은 실제 일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희라에 대한 애뜻하고도 진솔한 사랑을 드러냈다. 1월 20일 맞는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며 하희라와 함께 라오스로 ‘은혼’ 여행을 떠난 최수종은 숙소에서 살뜰하게 아내를 챙기는 모습으로 시청자의 감탄을 자아냈다. 최수종은 “만약 다른 여자였다면 내

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전했다.

또 스스로도 젊은 시절 몸매와 크게 다르지 않는 탄탄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동안의 얼굴에 어울리는 몸매는 그가 여전히 자기 관리에 엄격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줬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최수종은 이 같은 모습으로 30여년 동안 일궈온 자신의 자리가 결코 단박에 굳어진 것이 아님을 일깨웠다.

‘동상이몽’ 속 활약 덕분에 최수종은 CF 등 광고업계로부터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수종 소속사 관계자는 20일 “간간이 광고모델로 나서오기는 했지만 최근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낸 매력에 광고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다시 가시적으로 전해져 온다”면서 다양한 광고모델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여전한 감각의 연기자로도

사실 최수종은 1990년대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와 2003년 SBS ‘최수종쇼’, 2008년 SBS ‘스타쇼’ 등 예능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누렸다. 탄탄한 연기력에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 그 바탕이 됐다. 베타이를 입에 물고 추는 코믹댄스는 시청자의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만큼 예능감각에 있어서도 재능을 갖춘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후 드라마 등 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예능프로그램과는 멀어지는 듯했다. 예능프로그램이 인위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기를 드러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최수종은 1988년 KBS 2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후 27년 만에 DJ로 나서 KBS 해피 FM ‘매일 그대와 최수종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을 만나기 시작한 셈이다. 이어 최근 ‘동상이몽’으로 대중과 더욱 가까워지며 향후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최수종 소속사 관계자는 “이미 몇몇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다”면서 “내심 결심을 굳힌 작품도 없지 않다. 향후 편성 상황 등을 고려해 조만간 작품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불꽃 속으로’ 이후 4년 만에 정통 드라마로도 그의 진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다가오는 셈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배우 조민기, 여대생 성추행 의혹으로 교수 사임

피해 조사한 학교 측 “28일 면직처분”
조민기 “명백한 루머” 법적대응 고려

연기자 조민기(53)가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조민기 측은 “명백한 루머”라고 반박했지만, 학교 측은 조민기를 면직 처분할 예정이어서 진실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청주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조민기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고, 학교 측은 연극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교내 양성평등위원회에 넘겼다. 1월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조민기에 대한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며, 2월 28일자로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모든 과정은 학칙에 따라 진행됐다. 서면과 대면을 통한 조사에서 학생의 피해 진술을 받았기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민기 소속사인 웰테레민먼트는 20일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라며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역



조민기

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민기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기의 사임 배경에 대해 소속사 측은 “수업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아 도의적 책임감에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에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루머가 지난해 초부터 떠돌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불특정 세력으로부터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도 생각했다. 상처 받을 가족과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민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 의도적인 악성 루머를 양산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파격변신...머리부터 바꾼 ‘리턴’ 박진희

강렬한 쇼트컷으로 22일부터 본격 등장
시간 촉박해 세트장서 미용사 부르기도

고현정 대타로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합류한 박진희가 강렬한 외모 변신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리턴’ 측이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진희의 캐릭터 프로필 사진은 파격적이다. 불과 일주일 전 SBS 예능프로그램 ‘살짝 미쳐도 좋아’에서 긴 머리로 여성미를 드러냈던 그가 드라마를 위해 턱 선이 드러날 만큼 쇼트컷으로 색독 잘랐다. 이를 통해 박진희가 보여줄 연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었다. 고현정이 연출자 주동민 PD와 불과 끝에 하차하면서 잡음이 워낙 컸고 후폭풍이 거세 박진희가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이미지 변신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셈이다.

2010년 SBS ‘자이언트’ 이후 가장 짧은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박진희는 이번 드라마에서 맡은 변호사 역할에 맞춰 날카롭고 냉철함이 돋보이는 스타일링을 선택했다. 박진희는 급하게 드라마에 투입되는 자신이 평소 다니는 헤어숍에 가지 않고, 자신의 첫 촬영날인 13일



박진희

밤 경기도 고양시 탄현에 위치한 세트장에 미용사를 불러 쇼트컷의 헤어스타일을 완성시켰지만, 그 반응은 뜨겁다.

박진희의 캐릭터는 후반부로 갈수록 비중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이야기 결말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그의

강렬한 외모는 시청자들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박진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2일 17회는 총 32부작인 드라마가 정확히 반란점을 도는 시점이어서 ‘제2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박진희만의 색깔로 만드는 최자캐 캐릭터에 대한 기대가 높다. 방영 중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박진희의 합류로 현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촬영이 빠듯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3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음악축제 ‘2018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무대에 오르는 타이거JK(왼쪽)과 주노플로. 스포츠동아DB

SXSW 오를 힙합뮤지션은?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뮤직 페스티벌)

내달2일 엠앤티 코리아페스티벌 개최
타이거JK·주노플로 등 3월17일 무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무대에 오를 힙합 뮤지션을 선별하는 음악 축제에 열린다.

3월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엠앤티 코리아 페스티벌’이 그 행사로, 카이스인포(CA ISINFO)와 스포츠동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카이스인포 측은 2018 SXSW 본 무대에 오를 한국 아티스트로 타이거JK, 주노플로 등을 확정하고, 이들과 함께 SXSW에 참가할 힙합 뮤지션 2팀(명)을 이번 엠앤티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경연을 통해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SXSW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1987년 시작된 이후 점점 규모가 커져 현재는 90여개 공연장에서 50여 개국의 2만여 명의 음악관계자들과 2000여 팀의 뮤지션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직페스티벌이다.

카이스인포와 스폰서십을 맺은 미국 힙합음원구매 온라인사이트 마이믹스테이

프(Mymixtapez)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엠앤티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는 타이거JK, 주노플로 등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최종 선발된 10여명의 아티스트가 힙합 뮤지션들의 불꽃 튀는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홍보 이벤트와 현장 추첨을 통해 총 4명에게 SXSW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레저, 문화, 생활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가상화폐 엠씨엔코인(MCNcoin)과 기념품, 협찬물품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이스인포는 5일 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코인뱅크(OKcoinbank)를 열고, 가상화폐 엠씨엔코인 유통을 맡고 있다.

카이스인포 관계자는 “엠씨엔코인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협의중인 신용카드사의 제휴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 쇼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문화콘텐츠 시장에 엠씨엔코인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숫자뉴스

22만 명

3월16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그룹 뉴이스트W 콘서트 입장권을 사기 위해 예매사이트에 몰린 동시접속자수. 인터파크티켓이 19일 오후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접속자수가 폭주했고, 순식간에 전화 매진됐다.

#해시태그 킷



‘불링계의 신예’ 세븐

가수 세븐이 불링 연습에 지친 모습이다. 세븐은 “전설의 불링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밤새 불링 쳐서 졸린 것 같긴 한데, ‘왕피곤’”이라는 글을 남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불링에 열중했는지 드러난다. 눈을 부릅떠 힘든 기색을 숨기려하는 것 같지만 눈 밑 아래까지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있다. 팬들은 “불링계의 신예”라면서도 “건강 챙기라”고 걱정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세븐 #불링삼매경 #왕피곤

연예뉴스 HOT3

배우 이민호 ‘프로미즈’ 캠페인 참여



이민호

배우 이민호가 20일 기부 브랜드 ‘프로미즈’(PRO MIZ)를 통해 입양대기아동을 위한 우유 및 이유식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유수염프로젝트 [우유하다] : 아이들에게 우유수염을 그려주세요’란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텀블러 보틀과 유가농 먼 손수건, 뱃지 2종으로 총 3가지 제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 전액을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대기아동을 위한 ‘우유’ 구입에 사용된다. 네이버의 기부 포털 ‘해피빈’을 통해 판매되는 이들 제품은 우유를 마신 후 입가에 남는 우유자국을 형상화한 ‘스’ 모양과 우유병의 그래픽 모티프를 사용해 디자인됐다.

노을, 내달5일 새 싱글앨범 발표

보컬그룹 노을이 3월5일 새 싱글 ‘그날의 너에게’를 발표한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긴 후 처음 발표하는 새 음반이자, 1년9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이번 싱글의 타이틀곡은 ‘그날의 너에게’로, 이별의 순간 전할 수 없었던 위로로 담은 노래다. 노을은 소속사를 통해 “오랜 만에 발표하는 신곡이라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렌다. 이 곡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길 바라고, 위로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걸그룹 ‘구구단’, 내달 홍콩서 팬미팅

걸그룹 구구단이 3월25일 오후 7시30분 홍콩 맥퍼슨 스타디움에서 ‘2018 구구단 퍼스트 아시아 투어 라이브 쇼 인 홍콩’이란 이름으로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홍콩 팬미팅은 최근 현지에서 먼저 보도돼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9월27일 싱가포르에서 첫 해외 팬미팅을 개최한 구구단은 이번 홍콩을 시작으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두 번째 싱글 ‘엑트.4 캐트 시’로 활동중인 구구단은 타이틀곡 ‘더 부츠’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